

FIP-2009-0021 (통권 제145호, 2009. 09. 10)

아시아 주요도시 투자여건 비교와 시사점

ISSUE
PAPER

Contents

1. 검토 배경	1
2. 아시아 주요 도시의 투자환경 비교	1
3. 한국과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투자환경 비교	6
4. 시사점	9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아시아팀 강수정 조사역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3771-0408 FAX : 6234-5325 E-mail : neco@fki.or.kr

1. 검토 배경

- 최근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이 Post China로 부상함에 따라 아시아 주요 도시의 경쟁력 비교를 통한 현황 파악 및 가능성 검토 필요
 - 아시아 주요국인 일본·중국·한국·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보유한 Post China 지역의 현황을 파악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MF, 월드뱅크가 한국의 투자잠재성을 높게 평가함에 따라 한국의 경쟁력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함
 - 금융불안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내년에 4.2% 이상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 * 본 보고서는 JETRO 「아시아 주요도시 투자관련 코스트 비교(2009.5)」 통계자료를 기초로 함

2. 아시아 주요 도시의 투자환경 비교

1) 임금 수준

- 아시아 주요 13개 도시의 임금(연봉) 수준을 보면, 전반적으로 제조업보다 비제조업 부문이 높고, 중견 엔지니어 임금이 정규직 과장급 임금보다 낮음
 - 베이징을 기준으로 각 도시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오키나와는 약 8배, 싱가포르·서울은 약 4배로 타 도시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
 -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최근 Post China로 부상한 국가의 도시들은 베이징 임금의 1/2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참고] 2008년 국가별 1인당 GDP : 싱가포르 37,600달러, 일본 38,585달러, 한국 18,880달러, 필리핀 1,819달러, 베트남 1,060달러, 방글라데시 480달러(2009, 수출입은행)

〈 아시아 주요 도시의 임금(연봉) 수준 비교 〉

(단위: 달러)

도시(국가)	제조업			비제조업	
	정규고용 (직원)	엔지니어 (중견)	정규고용 (과장급)	정규고용 (직원)	정규고용 (과장급)
뉴델리(인도)	2,800.6	6,811.3	15,654.4	8,020.4	22,324.6
다카(방글라데시)	1,154.5	3,528.0	8,175.3	4,998.8	10,034.4
마닐라(필리핀)	4,287.2	4,830.8	12,495.8	5,737.1	15,266.5
방콕(태국)	5,876.9	10,313.3	25,431.0	11,146.3	22,271.6
베이징(중국)	5,042.0	15,880.9	22,403.3	11,570.9	29,357.9
서울(한국)	20,106.1	25,942.6	36,339.5	25,692.4	43,181.6
싱가포르	21,135.8	43,031.3	54,997.5	26,560.7	53,699.3
양곤(미얀마)	544.6	1,372.9	2,245.8	2,186.4	5,142.1
오키나와(일본)	40,217.1	63,306.2	64,412.8	33,288.2	62,511.4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833.7	4,583.7	11,433.6	4,051.4	12,420.0
콜롬보(스리랑카)	1,599.7	3,594.0	8,472.9	6,282.8	13,440.6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4,714.3	12,207.8	22,942.4	12,119.9	29,504.9
하노이(베트남)	1,578.0	4,476.9	10,621.9	6,151.3	14,187.5

* 주 : 각 도시의 40~60개사 평균 임금임

* 자료 : JETRO, 아시아 주요도시 투자관련 코스트 비교 (2009.5)

2) 토지 및 사무실 임대료

- 공업단지 월임대료 : 베이징, 자카르타, 방콕이 m²당 3달러 이상으로 높고 나머지 대부분의 도시는 m²당 1달러 내외로 저렴한 수준임
 - * 서울은 천안외국인기업전용단지, 베이징은 북경경제기술개발구표준공장, 싱가포르는 싱가포르공업단지, 방콕은 아마타나콘공업단지, 오키나와는 오키나와특별자유무역지역 기준임
- 사무실 월임대료 : 각 도시 실정에 따라 편차가 크편이나, 베이징·뉴델리·싱가포르는 최대 월 임대료 60달러 이상으로 타 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
 - * 베이징은 국무(國貿)오피스빌딩, 뉴델리는 Sacchetto, 싱가포르는 Raffles Place, 서울은 종로구 기준임
- 시내중심 지역 점포 : 베이징과 비교하여 서울과 오키나와의 시내중심 지역 점포 임대료는 각각 0.5배, 0.4배로 낮고, 하노이는 최대 약 1.5배로 높음
 - * 서울은 을지로2가, 베이징은 장안(長安街), 하노이는 Pacific Place, Vincom Towers,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시내중심 국제로 기준임

〈 토지 및 사무실 월 임대료 비교 〉

(단위: 달러)

도시(국가)	공업단지 m ² 당	사무실 m ² 당	시내중심 점포 m ² 당
뉴델리(인도)	-	37.2~62.0	62.0~86.7
다카(방글라데시)	0.2~2.8	10.9~23.4	23.4
마닐라(필리핀)	1.0	11.7~17.0	6.4~8.5
방콕(태국)	6.0	17.2	28.7~85.9
베이징(중국)	4.4~19.7	51.2~67.3	96.1
서울(한국)	0.15	40.6	49.9
싱가포르	0.5~1.5	35.9~64.6	78.0
양곤(미얀마)	0.2~0.3	15.0	26.9
오키나와(일본)	1.8	20.4~24.3	38.4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3.5~4.0	23.0	35.7~80.4
콜롬보(스리랑카)	0.1	7.9~18.5	18.9~33.1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	15.0~45.9	9.0~16.5
하노이(베트남)*	0.1	27.6	99.0~143.0

3) 유틸리티(전기, 수도, 가스)비

- 산업용 전기 : 월 기본료가 없는 도시는 베이징·양곤·하노이 이며, 베이징을 기준으로 오키나와·싱가포르의 이용료가 약 2배나 높음
 - 서울·자카르타는 베이징 이용료의 1/2 수준이며, 마닐라·양곤·쿠알라룸푸르는 베이징 이용료와 비슷
- 산업용 수도 : 월 기본료가 없는 도시는 다카·방콕·베이징·싱가포르·양곤·쿠알라룸푸르·하노이로 주요 도시의 50%가 기본료 부과를 안함
 - 오키나와는 월 기본료(48.27달러)와 1m³당 이용료(2.87~3.71)가 가장 높고, 서울은 월 기본료 0.02 달러, 1m³당 이용료 0.01~0.04달러로 가장 낮음
- 산업용 가스 : 오키나와·쿠알라룸푸르 외에 모든 도시의 월 기본료가 없고, 뉴델리는 1m³당 이용요금이 0.07달러로 가장 낮음

〈 아시아 주요 도시의 유틸리티 비용 비교 〉

(단위: 달러, 2009.2 기준)

도시(국가)	산업용 전기료		산업용 수도요금		산업용 가스요금	
	월기본료	1 KWh 당	월기본료	1 m ³ 당	월기본료	1 m ³ 당
뉴델리(인도)	1.09	0.11	12.91	0.32~1.08	없음	0.07
다카(방글라데시)	8.70	0.023~0.084	없음	0.37	없음	0.03~0.12
마닐라(필리핀)	20.64	0.07	8.27	1.14~1.38	-	0.70
방콕(태국)	6.54	0.10	없음	0.27~0.45	없음	3.77*
베이징(중국)	없음	0.08	없음	0.8	없음	0.3
서울(한국)	3.04	0.04	0.02	계량 0.01 초과 0.04	없음	0.43
싱가포르	4.98	0.15	없음	1.39	없음	0.14
양곤(미얀마)	없음	0.08	없음	0.88	없음	1.00
오키나와(일본)	21.63	하절기 0.15 와 0.14	48.27	2.87~3.71	장액 15.32 유량 10.96	1.90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90	0.04	13.11	1.23	없음	0.065~0.068
콜롬보(스리랑카)	2.11	0.07~0.22	0.69~13.77	0.41	없음	1.23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166.99	0.08	없음	0.53	105.25	3.63*
하노이(베트남)	없음	0.028~0.103	없음	0.292	없음	0.90

* 주 : 방콕, 쿠알라룸푸르 가스요금은 100만BTU(British Thermal Unit) = 28.26m³당 요금임

4) 물류·유류비

- 컨테이너 : 아시아 주요도시 가운데 서울에서 미국으로의 이용료가 리터당 1,500달러로 가장 낮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
 - 베이징의 對미 컨테이너 비용을 100으로 보았을 때, 서울은 56이고 싱가포르는 91, 오키나와는 128, 다카는 127 정도의 수준임
- 휘발유 가격 : 조사시점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으나 베이징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자카르타·양곤이 약 1/2 수준으로 낮음
 - 오키나와·다카·싱가포르·콜롬보는 1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높은 편
- 경유 가격 : 오키나와·싱가포르·서울의 경유 가격이 베이징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도시들은 모두 베이징보다 낮음

〈 아시아 주요 도시의 물류·유통 비용 비교 〉

(단위: 달러/ℓ 당, 2009.1 기준)

도시(국가)	컨테이너		휘발유	경유
	일본까지 운송비	미국까지 운송비		
뉴델리(인도)	550	2,250	0.83	0.63
다카(방글라데시)	1,600	3,350	1.12	0.64
마닐라(필리핀)	945	1,600	0.68	0.68
방콕(태국)	885	3,218	0.61	0.54
베이징(중국)	316~576	2,223~2,647	0.8	0.79
서울(한국)	700	1,500	0.95	0.93
싱가포르	600	2,402	1.06~1.07	0.83
양곤(미얀마)	1,600	NA	0.48	0.57
오키나와(일본)	-	3,395	1.15	1.13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1,200	2,200	0.4	0.4
콜롬보(스리랑카)	700	2,950	1.05	0.61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680	2,050	0.5	0.47
하노이(베트남)	1,120	2,920	0.65	0.65

5) 세 율

- 법인세 : 싱가포르가 외국인 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17%로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음
 - * 싱가포르는 해외투자 및 기업 유치를 위해 2005년 25%에 달했던 법인세를 2007년 20%, 2008년 18%, 2009년 4월부터는 17%로 인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하정책을 추진해 옴
 - * 또한 신설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해 최초 3년간 2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감면해주며, 향후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계획중
- 개인소득세 :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다카가 각각 20%, 25%, 27%로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베이징 세율은 45%로 가장 높음
- 부가가치세 : 오키나와가 5%로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으며, 베이징·뉴델리·콜롬보는 각각 17%, 12.5%, 12%로 높은 편임

〈 아시아 주요 도시의 세율 비교 〉

(단위: 달러)

도시(국가)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VAT)
뉴델리(인도)	30%	30%	12.5%
다카(방글라데시)	37.5%	25%	-
마닐라(필리핀)	30%	32%	12%
방콕(태국)	30%	37%	7%
베이징(중국)	25%	45%	17%
서울(한국)	22%	35%	10%
싱가포르	17%	20%	7%
양곤(미얀마)	40%	15, 30, 40%	0~30%
오키나와(일본)	30%	40%	5%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8%	30%	10%
콜롬보(스리랑카)	15~35%	35%	12%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25%	27%	매출: 5~20%, 서비스: 5%
하노이(베트남)	25%	35%	표준세 0%, 5%, 10%

3. 한국과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투자환경 비교

- 한국은 IMD 세계경쟁력 평가(2009) 결과, 주요 국가 57개 중 외국인 투자 54위, 물가 52위, 기업관련 법규 48위, 사회적 인프라 51위 등 투자유치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
- 오히려 중국이 외국인 투자 31위, 물가 22위, 기업관련 법규 43위, 사회적 인프라 27위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국가별 투자환경 경쟁력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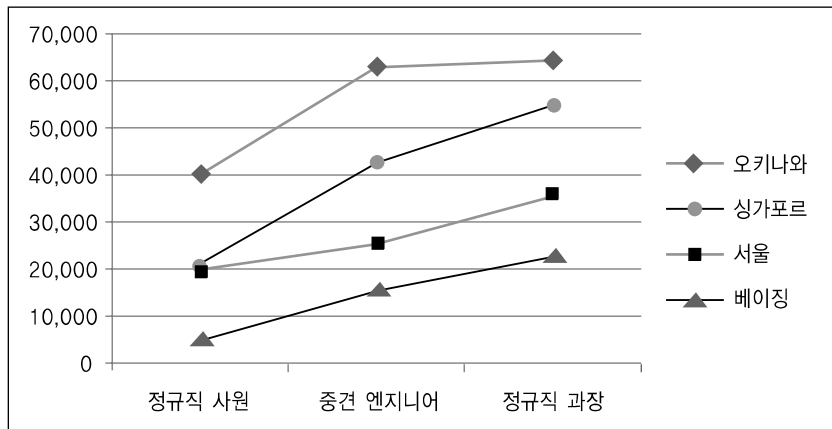
	외국인 투자	물가	기업관련 법규	사회적 인프라
홍콩	1	51	5	12
싱가포르	25	48	2	10
일본	14	46	17	54
말레이시아	32	6	33	40
중국	31	22	43	27
한국	54	52	48	51

* 자료 : IMD 세계경쟁력 통계, 2009

- 특히 한국은 싱가포르와 비교하여 정규직 직원의 임금 수준이 높아 투자 유치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과장급 임금의 경우 싱가포르가 한국보다 1.5배 높으나 입사초기 직원 임금은 양국이 비슷하여, 한국의 초기임금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52,900달러)의 1인당 GDP는 한국(27,100달러)의 2배 수준임

〈 제조업 분야 임금(연봉) 수준 비교 〉

(단위: 달러)



- 또한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0개국 가운데 23위로, 일본 노동생산성의 77.1% 정도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효율성이 떨어짐
- 한국의 제조업 분야 노동생산성은 4만 9,687달러로 17위이고, 서비스업은 2만 9,258달러로 23위를 기록해 서비스업 생산성이 더 떨어짐
-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서비스업 생산성은 각각 39.7%, 53.6% 수준에 불과해 서비스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필요

〈 전산업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수준 국제비교(2007년 기준) 〉

(단위: 1천US\$, 천명, 지수(한국=100.0))

순위	국가	경상GDP	PPP	조정 GDP	취업자수	노동생산성	지수
4	미 국	13,741,600	1.00	13,741,600	153,775	89.4	174.5
7	호 주	1,131,585	1.43	792,634	10,507	75.4	147.3
11	네덜란드	559,537	0.89	631,405	8,613	73.3	143.1
21	일 본	515,475,301	120.31	4,284,511	64,500	66.4	129.7
22	뉴질랜드	177,697	1.54	115,069	2,165	53.1	103.8
23	한 국	901,188,604	751.45	1,199,270	23,417	51.2	100.0

* 주 : PPP=구매력평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경상GDP/당해년PPP)/취업자 수

* 자료 : OECD, 2009 OECD 노동생산성 통계

- 안정적인 일자리와 조직문화를 중요시하는 일본보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각하며, OECD 27개국 가운데 유연성 순위에서 중하위권을 기록

〈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 비교 〉

	2004	2005		2006	
	노동시장 유연성	고용경직성	해고곤란	고용경직성	해고곤란
일 본	10 위	7 위	1 위	10 위	3 위
한 국	14 위	19 위	15 위	15 위	14 위

* 주 : 고용경직성과 해고곤란은 각각 약한 정도의 순위를 나타냄

* 자료 : World bank 2006 & 2007, Cunat and Melitz 2007

〈 우리나라 노사분규 관련 지표 〉

(단위: 건, 일)

	2005	2006	2007	2008	2009.7
발생건수(사업장 기준)	287	253	212	130	146
불법분규 건수	16	24	17	17	4
근로손실일수	847,697	1,200,267	536,285	809,402	311,540

* 자료 : 노동부

- 한국의 GDP 대비 국가물류비는 일본(8.36%)에 비해 높은 12.52%이며,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도 일본(4.8%)보다 높은 9.7%를 기록

- 화물자동차직접운송의무제도, 중량·장척화물 제한차량에 대한 통행규제 등 현실여건과 동떨어진 획일적인 규제 등의 영향으로 물류비가 높은 편

* 자료 : 전경련 「2009,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과제」

- 싱가포르는 특히 법인세율이 낮아 외국기업 유치에 가장 큰 경쟁력으로 작용, 한국도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투자유치에 노력할 예정

* 2009년 초, 다국적 컨설팅사인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앤드쿠퍼스)는 싱가포르의 낮은 법인세(일정기간 5~6% 부과)를 이유로 미국 IBM,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본사 등에 한국 법인을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함

4. 시사점

- 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은 대표 도시의 투자비와 인건비가 저렴하고 성장가능성도 높아 Post China의 주요투자 지역으로 부상
 - 말레이시아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외국계 기업 5,000여개가 진출해 있고, 세계금융위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유지
 - 베트남은 WTO 회원국으로 시장개방 양허일정에 따라 2009년 무역, 유통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됨
 - 인도네시아는 약 5천억달러의 동남아 최대 경제대국으로 5% 이상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
 - 월 최저임금이 100달러 수준, 인구는 약 2.3억명으로 세계 4위
 - 인도는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전공자가 약 20만명에 달할 정도로 공과대학에서 배출하는 고급인적자원도 풍부
 - 세계 3위 석탄 생산국, 세계 6위 철강 매장량을 기록하는 등 석유, 가스, 석탄, 철광석 등 에너지 및 지하자원 또한 풍부
- 한국은 고비용 생산구조에 따른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및 산업기반 약화 우려로 해외시장에서의 투자유치 경쟁력이 저하되어 투자여건 개선필요
 - 고비용 생산구조의 원인인 경직된 노동시장과 강성 노조의 불법파업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임금 정상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필요
 - 최근 서울재팬클럽(SJC)은 '2008년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SJC 건의사항'을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노동 관련법 개선을 요청

〈 2008년 서울재팬클럽(SJC) 건의사항 〉

항 목	요청 내용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및 차별금지의 완화	- 사용기간 제한 연장(2년→4년) 및 노사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 추가적 계약연장 인정 -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지원 금지	- 선진국에서는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한국은 2009년까지 실시예정 - 2010년 이후 노사관계발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논의 경과 및 구체적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유예되지 않도록 해야 함